

## 등하굣길 '앱 차단 기기' 설치... 스쿨존 스몸비가 사라졌다

입력 2023.11.14. 오전 4:07 기사원문

백재연 기자

38

18

금천구 신흥초, 학교 주변 1.2km  
스마트폰 사용제한... 통화 만 가능  
교통사고 예방 효과 학부모 '만족'



서울 금천구 신흥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전봇대에 교통사고 예방용 블루투스 기기(붉은 점선 안)가 설치돼 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애니타임'을 설치하면 블루투스 기기가 스마트폰을 인식해 사용 중인 기능을 강제 중지시킨다.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금천구 신흥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마을버스와 자동차, 오토비. . .

친구와 웃고 떠들며 나오는 학생 대다수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소위 ‘스몸비’(스마트폰+좀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스몸비는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좀비처럼 걷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시야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이 광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신흥초는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가 관내 스쿨존에서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시범 사업이다. 전용 앱 ‘애니타임’을 설치하면 스쿨존 일대에 설치된 블루투스 기계들이 스마트폰을 인식해 사용 중인 기능을 강제 중지한다. 이날 학교 앞에서 만난 초등학교 3학년 김모양은 “휴대전화로 뭘 하려고 하면 계속 창이 꺼진다”며 “그게 귀찮아 이제는 학교 앞에서 휴대전화를 안 한다”고 답했다.

실제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해 서비스를 체험해 봤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유튜브 시청 등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했지만 세 걸음 정도 걸자마자 사용하던 앱이 강제로 종료되며 기본 배경화면으로 돌아갔다. 배경화면 오른쪽 위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 아이콘이 깜빡거렸다. 앱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걸음을 멈춰야 했다. 결국 번거로움 탓에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신흥초의 경우 학교 주변 약 1.2km가 ‘노(No) 스몸비존’으로 지정돼 있다. 앱을 사용할 경우 이 구역에선 보행 중 통화만 가능하다. 지난달 기준 신흥초 전교생 371명 중 99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금천구가 지난 3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3명 중 98.4%(62명)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도입 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에 효과성이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 전체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 1

이 앱을 만든 업체 알티앤씨 신동환 팀장은 “최소한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 부모용 앱에서 별점이 높고 자녀용 앱에선 낮게 나오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내년 중으로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비스 확대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나래초 정심초 영남초 시흥초 등 4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백재연 기자(energy@kmib.co.kr)

### 국민일보



백재연 기자 >

구독자 1,453    응원수 910

안녕하세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멍멍! 전화왔어 멍!' 청각장애 주인 흔드는 도우미견

'몽골발' 올해 첫 황사...내일은 다시 영하권

구독

Copyright © 국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 국민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용감한 김 일병' 생일 휴가 중 강남역 몰카범 잡았다

"창살없는 감옥...고작 21살이었다"...성매매 여성의 호소

"수능 GG치고 놀자"... 기괴한 '응원 현수막'에 시끌

'응팔 커플' 류준열·헤리, 6년 공개 열애 마침표

"어이없는 XX네"... 한동훈 겨냥, 이번엔 민형배 의원 폭언